

여수시, '여수형 푸드플랜' 수립 시동

26일 연구용역 제안서 접수...내달 2일 평가 "도농상생형 지속가능 농업 모델 구축 박차"

여수시가 '여수형 푸드플랜' 수립을 위해 시동을 걸었다. 시는 지난 6일 입찰공고를 내고 '여수형 푸드플랜' 수립 연구용역(협상계약)에 참여할 업체 모집에 들어갔다. 입찰 공고는 오는 25일까지며, 제안서 접수는 26일, 평가는 6월 2일이다. '푸드플랜'은 도농 상생기반을 마련

하고 안정적인 먹거리 공급기반을 구축하고자 생산, 가공, 유통뿐만 아니라 소비, 생활, 영양, 폐기 등 전 과정을 연계하는 지역 먹거리 순환 종합 전략으로,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 일환이다. 용역예산은 1억 원이며, 8개월 동안 지역 먹거리(농·수·축산물) 현황분석

및 실태조사, 여수형 푸드플랜 수립(안) 마련, 푸드플랜 거버넌스 구성·운영 등을 수행한다. 입찰참가 자격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다. 다만 비영리법인인 소기업·소상공인 여부에 관계없이 입찰참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내실 있는 푸드플랜 수립을 통해 도농상생형 지속가능 농

업 모델이 제시될 수 있도록 관련 업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이웃과 25일까지 접수하는 제안서 평가위원 모집에 푸드플랜, 먹거리, 농수축산물 가공·유통 등 관련 분야 전문가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입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입찰소식)와 나라장터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제안서 평가위원 모집 등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여수=오상호기자



보성읍, 복지사각지대 발굴 캠페인 펼쳐

보성향토시장서 안내·홍보

보성읍희망드림협의체(공동위원장 조영우, 민간공동위원장 김재균)는 12일 보성향토시장에서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보성읍행정복지센터 직원 및 희망드림협의체 위원 및 복지기동대 회원 등이 함께해 주변에 어려운 이웃에게 관심을 가져 줄 것과 어려운 이웃 발견 시 언제든지 보성읍 행정복지센터로 신고할 수 있음을 안내·홍보했다. 보성=김명순기자

특히, 코로나19 등의 상황으로 소득 감소로 위기가 발생했으나 다른 사업 등에서 피해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시행중인 '한시 생계지원 사업'과 전 군민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보성군 긴급 재난 생활비' 지원 홍보도 병행 진행했다. 조영우 보성읍장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캠페인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발굴되어 복지사각지대 없는 행복한 보성읍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말했다. 보성=김명순기자

광양시, 도로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특색있는 가로숲길 조성으로 친환경 녹색도시 이미지 확립

광양시는 국가지원지방도(이하 국지도) 58호선(광양경찰서-반송재 구간)의 가로수 미조성구간에 미세먼지 저감과 도로 경관을 고려해 특색있는 가로숲길을 조성했다. 2019년 개통된 국지도 58호선은 차량 통행량이 많아 도시 이미지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만, 시가지에 비해 식재된 가로수가 많지 않아 가로수 식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 구간이다. 시는 올해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사업' 대상지에 국지도 58호선을

포함시키고 1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한 뒤, 대왕참나무 1,023주, 아카도철쭉 11,720주를 심어 약 5.4km 구간을 가로숲길로 조성했다. 김재복 녹지과장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이 그린뉴딜사업에 포함되고 대상지가 생활권으로 확대되어 올하는 폐선부지 등 7ha 면적에 70억 원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성을 완료한 가로숲길 이외에 현재 조성 중인 동천변과 운전면허시험장 주변, 앞으로 시행 예정



인 유당공원 주변 폐선부지까지 도시숲 조성에 최선을 다해 전국에서 손꼽히는 명품 도시숲이 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광양시는 2019~2020년 전국 기준 중 최대인 8ha 면적에 총사업비 80억 원(국비 40억, 시비 40억)

을 확보해 태인동 명당국가산단, 광양읍 초남공단과 익신산단, 옥곡면 신금산단지역을 중점적으로 조성해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선사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에 이바지할 바이다. 광양=심종섭기자

순천시 '찾아가는 어린이박물관' 운영

오늘까지 뿌리깊은나무박물관서 '신비한 마법의 방' 주제

순천시는 12일부터 14일까지 국립민속박물관과 협업으로 뿌리깊은나무박물관에서 '찾아가는 어린이박물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찾아가는 어린이박물관'은 국립민속박물관의 전시서비스가 낙안면에 소재한 뿌리깊은나무박물관에 정주하면서 '신비한 마법의 방'이라는 주제로 세계인형을 소개하는 교육프로그램이다. 교육대상은 순천시 관내 유치원으로 교육신청은 마감되었으며, 교육시간을 제외하면 일반인들도 전시서비스 관람이 가능하다. 교육은 12일과 13일 오전·오후, 14일은 오전으로 총 5회 진행되며, 교육내용은 뿌리깊은나무박물관 전시

실과 전시서비스 관람, 그리고 걱정인형 만들기 체험으로 구성되어 있다. 걱정인형은 국립민속박물관이 개발한 체험프로그램으로 걱정거리를 편지에 써서 인형의 품에 꽂아 머리맡에 놓아두고 자면 밤새 인형이 걱정을 처리해준다는 과테말라의 인형에서 유래하며, 작은 가슴속에 있는 걱정을 털어내고 밝게 성장하라는 희망의 의미를 담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과 함께하는 뿌리깊은나무박물관에서 풍요로운 시간을 보내보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순천=김승호기자

"공동농작업 현장 도시락 신청하세요"

순천시, 순천로컬푸드와 연계한 도농 협력지원사업

순천시는 민선7기 공약사업의 일환인 '도·농 협력센터' 지원사업으로 공동농작업 현장에 도시락 배달사업을 추진한다. 도·농 협력센터 지원사업은 도시와 농촌을 잇는 다양한 교류 사업으로 '농촌으로 함께 가게', '농부에게 배우는 우리지역 농업', '공동농작업 현장 도시락 배달사업'으로 구성된다. 이 중 도시락배달 사업은 순천시와 농업회사법인(주)순천로컬푸드가 협력하여 진행되는 사업으로 12,000원 상당의 도시락을 농가에서 4,000원만 부담하면 농민기 공동농작업 현장에서 든든한 한 끼 도시락을 맛 볼 수 있다.

인접한 읍·면별도 권역을 묶어 요일별 신청 가능지역은 구분되며, 1회당 주문가능 수량은 최소 3개, 최대 10개이다. 도시락 지원 기간은 ▲1차 지난 3일부터 7월 30일까지, ▲2차 9월 1일부터 11월 30일로 나뉘어 추진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11월 27일까지이며, 배달일 기준 3일전까지 농업회사법인(주)순천로컬푸드(061-741-8879)로 신청하면 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든든하고 푸짐한 한끼 도시락을 영농현장에 배달해드리니 많은 농업인들께서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천=김승호기자

광양시, '기업지원 소식 알리미'

카카오톡 개설...소통창구 기대

광양시가 기업지원 소식을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기업과의 소통창구인 '광양시 기업지원소식알리미'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했다. 이번 채널은 기존 공문, 홈페이지 등을 통한 기업 신규정책과 지원사업 안내 등의 고전적 홍보방식에 변화를 주고, 홍보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추진됐다. 또한, 실시간 카카오톡 채팅을 통해 전화나 방문 없이도 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고, 기업 애로사항도 수시로 접수 가능해 사용자의 편리성과 접근성을 크게 높였다. 이화영 지역경제과장은 "카카오톡 채널 개설로 기업인들이 최신 기업지원 소식을 빠르고 편리하게 제공받아

또한, 실시간 카카오톡 채팅을 통해 전화나 방문 없이도 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고, 기업 애로사항도 수시로 접수 가능해 사용자의 편리성과 접근성을 크게 높였다. 이화영 지역경제과장은 "카카오톡 채널 개설로 기업인들이 최신 기업지원 소식을 빠르고 편리하게 제공받아

기존 공문·홈페이지 등 고전적 방식, 홍보 사각지대 없애고자 별도 가입없이 카카오톡 검색창서 채널 추가 선택시 신청 가능

카카오톡 사용자라면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카카오톡 검색창에 '광양시 기업지원소식알리미'를 입력하고 채널추가를 선택하면 신청할 수 있다. 친구 맺기가 완료되면 기업지원소식알리미 채널을 통해 정부기관과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모사업과 기업지원 소식 등 유용한 정보를 알릴 특으로 간편하고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다. 광양=심종섭기자

실질적인 기업발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기업에 도움이 되는 맞춤형 홍보를 강화하고, 기업 간 소통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현재 광양시에 등록된 제조업체는 575개 사로, 시는 기업체 대표와 직원을 대상으로 카카오톡 채널 친구 맺기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광양=심종섭기자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하나의 마음으로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코로나19, 우리가 함께할 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집안에 머물러 주세요!



마스크 쓰기,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은 준수해 주세요!



약수 등 신체 접촉을 피하고
2m 간격거리를 두어 주세요!